

『보이지 않는 이야기』 독후 활동지



글 하이메 감보아 골덴베르 | 그림 웬슈첸 | 옮긴이 김난령
불광출판사 | 40쪽 | 초등1~2학년 | 우리 아이 인성교육 29

“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의 형태와
점자로 읽는 ‘이야기’를 절묘하게 연결한 그림책

”

활동1 책 읽고 이해하기

다음 문제를 풀며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생각해 봅시다.

1. 이 책에 나오는 '유령 이야기'는 왜 자신을 유령이라고 불렀을까요?

- ㉠ 정말 유령이어서
- ㉡ 아무도 자신을 읽어 주지 않아서
- ㉢ 무서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2. 유명한 이야기들이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뽐내고 있을 때,
유령 이야기는 어떻게 있었나요?

3. 자신을 '유령'이라고 부르던 '보이지 않는 이야기'의 정체는 무엇이었나요?

4. 만약 내가 도서관에서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만난다면,
그 책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5. 이 책을 읽고 내가 가장 기억하고 싶은 말이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점자를 찾아보자

보이지 않는 이야기책은 브라유 점자로 쓰여 있습니다.

브라유 점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글자예요. 작은 점 6개로 이루어져서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한 번에 모든 점의 위치를 읽어낼 수 있어요. 한글의 점자도 브라유 점자로 표기하지요. 점자에 대해 더 알아보고 배워봅시다.

1. '브라유 점자'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책에서 찾아 이름을 써 보세요.

2. 소녀가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알아봐 주었을 때 이야기가 나타났듯이, 우리 주변에도 잘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점자가 있어요.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점자를 찾아봅시다.

대표적으로 점자가 쓰이는 곳에는 엘리베이터 버튼, 화장실 안내 표지판, 버스 정류장 안내판, 공공기관 안내판, 지하철역 곳곳, ATM(현금인출기) 버튼 등이 있어요.

① 생활 속에서 점자가 쓰인 곳을 찾아 사진을 찍어 봅시다. (하루에서 일주일 동안, 최대한 많이 찾아보기)

② 내가 찍은 사진을 친구들과 함께 보며, 어디에 점자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③ 사진을 보며 "여기에도 점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었어요."라고 생각한 장소가 있다면 함께 말해 봅시다.

*심화 활동: 점자를 배워 보고, 점자로 내 이름을 써 봅시다.
('점자 타자 연습' 앱, 인터넷 검색, 점자 표 등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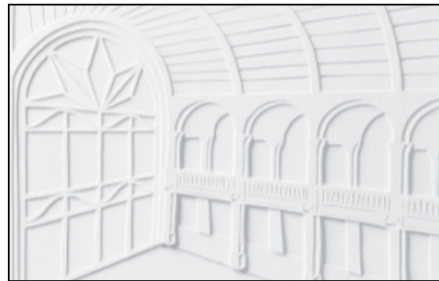
활동3 그림으로 표현해요

그림을 그린 작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고민 끝에 흰 종이를 오려서 그리는 '페이퍼 커팅'과, 색색의 종이를
찢어서 붙이는 '콜라주'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그려내었지요.
책 속의 특별한 두 그림 기법에 대해 더 알아보시다.

1. 책 속에서 ‘페이퍼 커팅’ 기법으로 표현된 그림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나요?
책을 보며, 찾아 나열해 봅시다. (예: 사람, 건물 등등)



(▲페이퍼 커팅)



2. 책 속에서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된 그림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나요?
책을 보며, 찾아 나열해 봅시다. (예: 점자를 느끼는 감각)



(▲콜라주)

3. 책에 나온 두 가지 표현 방법을 사용해, 어젯밤 꿈에 나온 한 장면을 만들어 보세요.
흰 종이를 오려 만드는 ‘페이퍼 커팅’으로는 꿈속에서 눈에 보였던 장면이나 사물을 표현하고,
색종이를 찢어 붙이는 ‘콜라주’로는 느낌, 감정, 상상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해 보세요.



내가 그린 그림을 글로 설명해 주세요.



이방인 되어보기

‘이방인’이라는 말은 원래 다른 나라나 고향에서 온 사람을 뜻하지만,
넓게는 나와 달라서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여요.
세상은 넓어졌고, 우리는 전학이나 이사, 여행, 인터넷을 통해 다른 곳의 사람들과 문화들을
자주 만나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이방인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방인’이 되기도 합니다.

1. ‘이방인’이라는 말의 뜻을 내 말로 써 보세요.

2. 나는 살면서 ‘이방인’이 되었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요?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써 보세요.

3. 그때 내 마음은 어땠나요?

소녀가 책을 막 펼치려는 순간, '보이지 않는 이야기'는 “멈춰! 난 유령이야!” 하고 소리쳤어요. 이처럼 소녀가 이야기를 알아보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 이야기'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자신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장면을 찾아 적어 보세요.

4.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해 봅시다.

5. '보이지 않는 이야기'는 소녀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빈 책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읽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보이지 않는 이야기처럼, 나에게도 '다름'이라고 느껴지는 점이 있나요? 그것이 왜 나만의 고유함이 될 수 있는지 써 보세요.

활동5 내가 본 특별한 사람

작가는 점자로 법전을 읽는 시각 장애인 변호사를 보고,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읽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경험은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1. 내가 만났던 ‘특별한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인터뷰한다고 생각하고,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이 사람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느끼고, 읽고)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서 내가 배우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해답

<활동 1>

1. ㉞ 아무도 자신을 읽어 주지 않아서
2. 유명한 이야기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그늘진 곳에 숨어,
부러움과 감탄이 섞인 한숨을 쉬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3.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손끝으로 읽는 브라우 점자로 쓰인 이야기책이었어요.
4. "너는 사라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빛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야."
5. 다름은 부족함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고유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 2>

1. 루이 브라우
- 2-3. 약봉지나 약통(약 이름, 먹는 방법 등), 샴푸/린스/바디워시 구분 표시,
전자레인지 버튼, 세탁기 버튼